

T\_M\_024

## 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영청 이목수가  
제주도에 도임<sup>하여</sup> 들어오라  
팽복으로 출려가지고  
제주일주를 <sup>하여</sup>,  
그 때는 사름 묻은 골총이  
산담도 헷싸지고,  
산도 쇠가 문 파불고 혼다.  
제주성내 들어와서  
사출을 정<sup>하여</sup> 앗아두서.  
대정원, 정의원, 모관원에  
통지<sup>하여</sup>,  
“산담 헐고 파진 걸  
잘 수리<sup>하여</sup> 놓라”고 훌 때,  
“짐녕 괴뇌깃당이  
처녀 <sup>하나씩</sup> 받나” <sup>하는</sup>  
소문을 듣고,  
이목수가  
“강 보겠다”고 <sup>하여</sup>  
짐녕 괴뇌깃당엘 간 보니.  
귀신이 없어,  
“어느 게 귀신이냐? <sup>하니</sup>,  
“심방 돌아당 굿을 치민  
귀신이 눈에 뵙네다” <sup>하여</sup>  
심방을 돌아단  
굿을 쳐가니  
큰큰<sup>한</sup> 배염이  
대맹이만 미죽이 내물아.  
이목수가 말을 <sup>하되</sup>,  
“배염이 그 상석에  
올라 앗도록  
굿을 더 잘 치라” <sup>하여</sup>.

굿을 치여가니  
배염이 석상데레  
막 올라았아.  
이젠 총 잘 쏘는 포술 불러,  
총으로 배염을 쏘아 죽여.  
영청 이목수가 성낼 들어오라.  
그날처녁 좀을 자는디  
꿈에 백발노장이 들어오라.  
“당신 영천 고을로  
당작 돌아가지 아녀민  
귀신이 들어 죽읍네다.” 흠니.  
그제는 배 잘 타는  
박동지 영감광  
짐동지 영감을 불러.  
“너 배를 잘 타지느냐?” 고  
물었더니.  
“그자 칫장이나  
좀 잡을 줄 앓네다.”  
“흘건 닐날랑 영천골로  
날 식거다 도라.” 흠여.  
뒷녁날은 배를 타고 가는디.  
상고지가 배뒤에  
붓짝 조차서고,  
그냥 영천골로 들어가 보니.  
그 신령이  
영천 이목술 죽이지 못 흠니  
고양에 아들 흠나 신 걸  
불써 죽연 이셨다.  
영천 이목순  
짐동지 박동지 ?라  
흐는 말이,  
“너 뭣으로 공을  
갈아주민 좋겠느냐?”  
“무곡이나 혼배 내여줍서.

제주 가서 굽는 백성에  
환상을 태우쿠다.” 흐니,  
그젠 이목수가  
박동지 짐동지신디,  
동지 배실을 내여주고  
남인 창고 김인 창고에  
가서  
무곡 혼배를 내여주니.  
식거 아져 오다가,  
먼 모르를 건당흐니  
배에 물집이 터져  
배가 수북수북 골라맞아 가니,  
짐동지광 박동지는  
옥항에 축술 흐기를.  
“우린 아뭇죄도 엇습네다.  
우린 무곡 쳐당  
환상빛에 굽는 백성을  
테울랴고 식경 옵네다.  
살려줍서.”  
흐여가니,  
배에 깃대고고리로  
큰 구렁이가 누려오라.  
그 물집 터진 디를  
핑 흐게 스려져서,  
배가 육끗흐게 물웃테레  
올라오라.  
한굿딜 당흐여,  
듬북개레 배를 대여  
드리판 놔서  
인부 빌어 무곡을 푸니.  
그 때에 옥항이서 누려와  
물집 막을 큰 구렁이신디  
짐동지 부인이 가서.  
“내게 태운 조상이건

나의 치매레 기여듭서” 흐연,  
치매통을 받으난  
구렝이가 치매레 기여들언  
소려지니.  
이젠 짐동지 부인이  
집으로 가 모샀단  
갯곳 두리빌레로 간 모시니.  
영등둘 초흐를 날은  
두리빌레로 누려가고,  
일천 어부에 뱃노래  
듣기 위하고  
일천 즘수에 숨비기소리  
듣기 위하고  
갯곳딜로 누려가니.  
글로 간  
초흐를 보름  
만민즈손에 상을 받고,  
동짓둘 초흐를 날  
모른밭딜로 오라  
초흐를 보름 상을 받읍네다.

제일, 매월 1일, 15일,  
11월 1일, 15일.

<제주시 내도동 남무 51세 문창옥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349-351.